

# 부모 교사 학생의 성교육에 관한 태도 및 실태 비교 연구

허 남 순

(한림대학 교수)

〈차 례〉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제한점

##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특성
2. 현대 사회에서의 청소년 성 문제의 특수성 및 성교육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성교육 현황

##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도구
3. 연구의 절차

## IV. 결 과

1. 응답자의 특성
2. 내용 결과

##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제 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대두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의 주변에서 자연스러운 이성교제를 보고 익혀 온 서양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성문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령이 어린(12세-17세)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급격히 증가하여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도를 더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하여도 청소년들의 혼전 성교 경험율이 해마다 급증하여 71년에 조사대상자들의 30%에서, 1979년 통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0%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세 이전에 성교 경험을 가지며 20%의 소녀가 16세 이전에 성교 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들 청소년들의 임신경험율도 1971년 9%에서 1979년 3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9세에서 15세 사이의 소녀들의 임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3백만 명의 성병 환자 중 2/3가 24세

미만의 젊은이이며 그 중 11 - 15세 사이의 소년 소녀들의 성병감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1976년의 통계에 나타나있다.”

전통적으로 남녀 칠세 부동석을 주장하던 한국의 경우도 서양의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성교제의 현상이 함께 들어왔고 따라서 청소년의 성문제가 사회문제로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최근에 나온 자료들에 의하면 남녀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12.1%가 자신이 스스로 성교 경험을 한 일이 있다고 보고하고 손잡고 팔장끼거나 키스나 포옹을 하는 연애행 교제를 한다고 하는 청소년도 30%나 되었다.” 12 - 17세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의 동성애적 성경험도 높아 각각 19.9%, 43.2%나 된다.”

이와 같이 이성교제의 행동 및 성적행동은 조기에 성인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서양 청소년의 특성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으나 성에 대한 지식과 의지적 태도는 생리적·행동적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를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을 뿐 뚜렷한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성교육이란 말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1960년대에 미국과 구라파에서 제창한 것이나 아직도 성교육은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국에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70년대 초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성교육, 주로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이 기혼여성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중·고등 학생을 위하여서는 1970년대 초에 학교에서 인구 교육과 아울러 순결 교육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성교육이라는 적극적인 용어를 쓸 수 있도록까지 발전하였다.

성교육이란 성에 대한 과학적인 생리와 구조 또는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자신과 이성에 관련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도덕적 가치의 측면을 교육하는 것으로” 인격교육의 일부인 것이다. 성교육은 단순하게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치와 기준과 태도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한순간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으로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 사회 등에서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성교육의 전문가들은 성교육은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나 교사 또는 청소년과 가장 가깝고 신뢰관계에 있는 책임있는 성인이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성이 단순히 분리된 영역으로서 가지는 의미보다는 성은 인간의 행동의 동인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리적인 발달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춘기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

적인 성교육의 실시가<sup>9), 10), 11)</sup> 절대로 필요하나 성교육은 교육의 과제로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안창성<sup>12)</sup> 민병근<sup>13)</sup> 조정숙<sup>14)</sup> 등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지식을 주간지, TV, 라디오, 대중잡지와 같은 매스콤을 통하여 얻으며 부모에게서 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경우는 6% 미만, 교사에게서 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경우는 9%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중요성에 비하여 성교육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문교부는 1983학년도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0단계로 나누어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서울시 교육연구원에 성교육 내용을 연구하게 하고 이에 따른 교사용 성교육 자료를 발간하도록 하였다.<sup>15)</sup>

그러나 성교육을 실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교육을 실시하는 부모나 교사들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와 확고한 신념과 충분한 지식이다. 성교육 전문가나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이 아무리 성교육의 중요성을 외친다고 하여도 일선 교사나 부모들이 성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은 행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부모나 교사는 충분한 성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청소년들 자신이 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치 않거나 성에 관한 의논을 부모나 교사에게 의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육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학생, 교사, 부모들이 청소년의 성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성교육 현황은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2. 연구의 목적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과반수의 청소년이 성에 관한 지식을 최초로 습득하는 연령인 14-15세의 중학교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부모, 교사들은 중학생들의 성문제를 어떻게 보며 성교육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성교육 현황은 어떠한가를 파악하여 보다 바람직한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 3.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중학생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② 중학생들의 성문제와 성교육에 대한 학생, 부모, 교사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 ③ 가정이나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 ④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른 부모와 교사들의 성교육의 방법이나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⑤ 부모의 교육정도, 연령, 성별에 따라 성문제나 성교육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

- ① 연구의 대상이 인구 18만의 중소 지방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대도시나 농촌지역에 일반화시키는 데 제한점이 있다.
- ② 담임 교사를 통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으므로 학생이나 부모들이 어느 정도 솔직하게 답하였을 것인가 하는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기는 교육시기상으로 중·고·대학 시절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라고 호칭된다. 아동은 아니면서 성인대열에 끼일 수도 없는 주변인(marginal man)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몹부림치는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표현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를 발달적 의의나 교육적 관심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자아의 탄생과 제2성징의 출현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sup>16)</sup> 이 중에서도 자아형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 청소년 전기에 일어나는 사춘기적 발육은 성적 성숙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사춘기적 발육은 남녀에 따라 성별차가 있고 기후, 문명, 환경, 영양상태에 따라 차가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보통 12-14세에 시작하는 것으로서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 주는 성숙의 표시인 것이다.

이 시기에 여성은 초경을 시작하며 남자는 정액의 사출이 시작된다. 그들은 2차적 성특징 즉 변성, 초경, 음모, 여드름, 사정 등에서 오는 새로운 충동을 느끼고 암암리에 자신의 신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사춘기에 돌입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대해서 불안과 호기심을 가지며 성적사전에 대한 탐구심이 왕성해진다. 이 시기에는 성적험오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차츰 높아져 이성에 대한 접근과 교제를 하고자 한다.<sup>17)</sup> 그러나 교제라든가 연애 및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가 서있지 않으며 막연히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의 견해와 사고방식에서 행동한다. 이때는 성욕의 배출구 때문

에 문제를 갖는 자가 많으며 사회적으로는 성문화에 의한 자극이 강하여 이를 적절히 소화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도 크다.

이와 같은 생리적 변화에 의해서 유발된 불안과 동요가 출발점이 되어 정서상의 문제, 자아의식의 고양, 내성적 태도의 발생, 독립의욕의 증대 등이 이루어 지게 된다. 특히 이 불안은 그들을 반항과 폭란과 태만과 냉담 등의 행동 등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 불쾌한 심정은 외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Ch. Bühler 는 이 시기를 부정기 (de negative phase) 라고 불렀다.<sup>19)</sup> 심적 사춘기의 개시는 생리적 성숙보다도 1-2년 빨리 나타난다고 보아 소위 부정적 단계 (negative stadium) 는 심적 사춘기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

Bühler 는 청년기를 그 심리적 경향에 의해서 전후 2기로 구분하여 부정적 경향을 특색으로 하는 전기를 청년 전기 혹은 사춘기라고 하였고 긍정적 경향을 특색으로 하는 후기를 청년기 후기라고 하여 그 한계를 17세에 두었다.<sup>20)</sup> 청소년은 점진적으로 성숙이 완성되어감에 따라 고뇌와 불안은 줄어들고 성장과 발달에 대한 희망이 생기며 자기의 능력이 자유롭게 되고 증가됨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Elizabeth B. Hurlock 은 성의식의 발달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sup>21)</sup>

첫째는 성적 반발기 (sex-antagonism)로서 8-12세 사이의 아동기에서 일어나며 남녀가 같이 노는 것을 싫어하며 남녀의 놀이가 별도로 분리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생리적인 원인 보다는 사회적 원인 즉 부모나 일반 성인들이 아동의 놀이나 일반적 생활에 있어서 남녀를 따로 취급, 평가하기 때문에 남녀는 서로가 자기의 성 특징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성적 혐오기 (sex-aversion)로서 사춘기의 부정적 경향의 일면으로서 이성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한 시기이다. 이것은 주로 생리적인 원인으로 부터 오는 현상으로서 생리적 변화가 올 때 성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까닭으로 인해 일어나는 성 일반에 대한 불안, 수치, 혐오의 현상이다. 이러한 성적 혐오는 성에 관한 가정이나 사회의 잘못된 교육 즉 성적인 것을 불결하게 생각하는 관념을 심어 주거나 성적 변화에 대하여 주위의 놀림을 받음으로써 수치심이나 공포심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세번째는 연장자를 동경하는 시기로서 13-16세 무렵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때에 동경하는 대상이 동성일 경우에는 심취 (crush) 라고 하고 이성인 경우를 영웅 숭배 (hero worshipping) 라고 한다. 이 때의 상대자의 태도 여하가 청소년의 자기 형성을 긍정적으로 촉진시켜 주기도 하고 반대로 자기 형성에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네번째는 이성애에 대한 열광시대로서 동년배의 이성애에 관심을 쏟는다. 남녀가 서로 이성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애쓰며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애에 접근하고자 하는 용기도 보이게 된다. 이 때는 과잉된 자아의식과 이상주의로 충돌도 많고 상대자를 쉽게 바꾸게 되는 약한 면도 있다.

다섯번째가 낭만적 연애의 시기로서 애정이 한 사람의 이성으로 집중하여 다른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며 결혼을 예상한 이성교제도 활발해진다.

이러한 성의식의 발달은 성에 대한 각종 사회·문화적, 윤리적 영향과 통제를 받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나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성에 대한 사회의 통제와 부정적 태도가 자주 갈등을 일으켜 Werkman<sup>21)</sup>은 이와 같은 갈등을 청소년기에 해결해야 할 발달과정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성적발달에 부적응을 가져와 부적응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원만한 성적발달과 성숙은 청소년의 자아발달이나 자아동일성에도 영향을 주어 주체적이고 통일적인 자기의식 또는 자아동일성을 확립하게 한다. 주체적이고 통합적인 자기의식은 자가지위에 따르는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자기의식과 자기가치의 발달, 사회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자기 평가나 안심과 자신감 그리고 자기긍정의 의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현대사회에서의 청소년 성문제의 특수성 및 성교육의 필요성

어느 시대이든 성 교육의 필요성이 부재한 시기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의 한국 청소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적인 도전과 자극 내지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신·구 가치의 갈등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변화한 것은 성 도덕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조 500년은 특히 여성에게는 성의 암흑시대였고 육체의 부정시, 성애의 수욕시, 이성의 경멸시의 삼위일체가 당시의 가치체계로서 성을 목살시켜 온 역사였다.<sup>22)</sup> 그러나 서구의 개방적 성 도덕관인 성의 인권주의 또는 프리섹스(free sex)의 풍조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성도덕관도 변화하고 있다. 생식의 기능으로서만 의미가 크던 성은 여성의 인권신장과 피임방법의 발달과 함께 육체적 쾌락이나 즐거움이란 가치로 변화하였다. TV, 영화, 잡지, 소설, 가요 등에서는 사랑과 연애를 예찬하고 성의 신비로움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반면에 아직도 부모나 교사들은 전통적 성규범인 유교의 윤리관에 다분히 영향을 받고 있어 성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금기하고 자연스러운 청소년의 성적발달을 억압이나 억제하는 성문화 풍토가 지배적이다. 부모들은 성은 불결하고 떳떳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성과 연관시켜 상상하고 자녀를 억압하고 구속하려 한다. 학교에서는 국민학교 4학년만 되면 남녀 학생들의 자리가 성별로 구분되어 버리며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예 학교가 성별로 구분되어 버린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는 남녀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드물어지게 되고 따라서 청소년의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은 부자연스럽게 억압되고 누적된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사춘기적인 성적 발육으로 인하여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성적 충동과 관심이 높아진다.

오늘날에 와서는 특히 성적인 성숙의 조기화로 신체적 성숙이 실제 연령에 어울리지 않게 성장하거나 심리적 성숙이 신체적 성숙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와 갈등이 심하다. 전찬화,<sup>26)</sup> 김성태와 김봉숙<sup>27)</sup>의 1960년대 조사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초경연령이 약 14세 5개월 정도이던 것이 김길자,<sup>28)</sup> 민병근의 1970년대 조사에서는 약 14세로, 1981년도의 조재형의 조사에서는 13-14세에 초경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도 여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1965년 중앙교육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의 몽정 평균 연령은 14세 9개월이었는데,<sup>29)</sup> 1976년 자료에서는 조사대상(국민학교 4,5,6)학년 남학생의 1/3이 넘는 37.5%가 몽정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30)</sup>

이와 같은 청소년의 성적인 조기화는 성적 실업(sexual unemployment) 상태를 길게 하며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의아닌 성적 과실을 범할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성에 대한 교육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은 올바른 성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 왔다.

성교육에 대한 견해도 ① 성교육은 필요없다는 주장 ②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므로 내버려두자는 경험을 강조하는 입장 ③ 성교육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잘 모르겠다는 입장 ④ 성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고 가능한 모든 성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등의 혼합된 반응을 나타낸다.

성교육은 필요없다거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므로 내버려두자는 부모들은 성교육이 감수성이 강한 아이들에게 자극이 되어 성 경험을 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교육 과정이 성에 대한 지식 축적을 위해 학생을 돕는데 효과적이며 태도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sup>31)</sup> Chesler<sup>32)</sup>는 청소년들의 임신이 증가하는 이 때 가족계획에 대하여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Douglas는 성교육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성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태도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sup>33)</sup> 박준희는 청소년의 성 도덕이 흐리게된 요인으로서 부모와 자

녀 사이의 성의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의학·생리학·보건위생의 발달에 대한 이해부족과 성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무지 그리고 뻘뻘어진 성의식 등을 들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고 방식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부모다움을 느끼고,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부모와의 대화를 즐겁게 여기며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아는 청소년일수록 성 경험율이 적고 부모와 친숙하게 지내는 것을 포기한지 오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 경험율이 거의 3배나 높다고 한다. 또한 자위행위, 피임, 성병 등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경험율이 낮다고 한다.<sup>32)</sup> 결국 부자 관계에 있어서 애정이 넘쳐 흐르고 자연스럽게 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청소년이 부모의 기대에 한층 부합되는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최지운은 성의 도덕적 측면은 가정, 환경, 가치관, 생활방식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3)</sup> 그러므로 성영자 등은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가정에서나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여 교육함으로써 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4)</sup> 김경희는 체계적인 성교육은 발달과정에서 생리적인 발달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춘기부터가 적합한 것으로서 성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만 국한되어 왔지만 부모자신의 성에 대한 지식 부족과 또 성적문제들과 관련된 편견 때문에 가족의 의 기관 특히 학교가 성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sup>35)</sup> 김석곤은 학교에서 성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성교육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부터는 정규 과정으로서 예정된 교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조사나 주장을 미루어 보아 학교나 가정에서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성교육의 내용은 과학적인 생리구조와 임신과 출산·피임 방법 등 자연 과학적인 것 뿐 아니라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모랄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인간교육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성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와 충동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승화시킬 수 있고 이성을 또 다른 인간으로서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배우고 만족스런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성병과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3. 우리나라의 성교육 현황

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교육계의 관심있는 학자와 교사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1978년도 초까지만해도 성교육이라고 하면 성에 관한



테크닉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순결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성교육이란 성에 관한 사실 뿐 아니라 그 도덕적 가치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순결 교육은 성적 순결과 윤리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으로서 성교육의 하위 개념인 것이다. 부산시의 경우는 교육감으로부터 부산 교위 산하 학교에서는 어떤 형태건 성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시까지도 내린 적이 있으며 그 뒤로 성교육을 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굳이 성교육 또는 순결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여학교에서는 가정이나 생활시간에 여성의 생리, 임신과 분만, 육아에 관해서 교육을 하여 왔고 남학교는 생물이나 사회시간에 생물학적 성지식이나 인구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을 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도 주로 고등학교에서부터 다루어져 왔으며 담당하는 교사에 따라 산발적이고 체계없이 피상적인 성지식의 전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부모에게서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율이 6% 미만이고 학교에서 성 지식을 얻는 경우도 9%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서 충분히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민병근<sup>3)</sup> 등은 중고등 학생에게 중학교 수준에 적합한 성교육의 한계를 다음의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남녀가 연령 구별없이 전체적으로 볼 때 월경+임신+생식기+순결교육+성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학생이 23.9%였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요구에 비하여 본다면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70%의 성인들이 부모가 자녀의 성교육에 주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85%의 성인들이 부모는 자녀들의 성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하여 당황스럽고 부자연스러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20%만이 자신의 부모에게 성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부모나 일선교사들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며 성교육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성교육은 어느 정도나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학생들을 통한 조사 외에는 부모나 교사를 상대로 한 조사는 나와 있지 않다. 또한 1983년도 문교부의 성교육에 대한 정책이 결정된 후 중고등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조사는 학생, 부모, 교사들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Ⅲ. 연구의 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인구 18만의 C시내에 위치한 한 남자 중학교의 2학년 6개 학급 중 2개 학급 129명과 한 여자중학교의 2학년 4개 학급 중 2개 학급 126명과 그들의 부모 255명 그리고 남자 중학교 교사 중 2학년 과목을 담당하거나 담임인 교사 20명, 여자중학교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자와 질문지 배부 및 회수율은 다음과 같다.

〈표 1-1〉 질문지 배부 및 회수상황 ( )은 %

조사대상 성별 회수상황	중학교 2학년				부 모		교 사	
	남		여		표 집 대 상	응답자	표 집 대 상	응답자
	표 집 대 상	응답자	표 집 대 상	응답자				
실 수 및 백 분 율	129	121 (93.7%)	126	118 (93.65)	255	209 (81.09)	35	25 (71.43)

표집대상 학생 255명 중 불완전한 응답을 한 16명을 제외한 239명 (남학생 121명 여학생 11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효한 응답율은 93.75%였다.

표집대상 부모 255명 중 불완전한 응답을 하였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46명을 제외한 20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 바 유효한 응답율은 81.96%였다.

표집대상 교사 35명 중 불완전한 응답을 하였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2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 바 유효한 응답율은 71.43%였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와 질문지 조사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학생, 부모 및 교사들의 성교육에 관한 태도 및 성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질문지는 한정식 질문법 (close-end questionnaire)과 개방식 (open-end questionnaire)을 병용하였으며, 학생과 부모, 교사를 위한 각각의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3. 연구 절차

남자 중학교와 여자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통해 각각 2개 학급의 담임교사를 소개 받았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지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질문지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부모들을 위해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지 배포 후 2~3일 안에 학생들을 통하여 다시 회수하였다.

교사들은 2학년 교과목을 담당하거나 담임하고 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질문지를 배포하도록 각 남·여학교 2학년 담임 중 한 분께 부탁을 드려서 질문지를 배포하고 당일 회수하였다.

N. 결 과

1. 응답자의 제특성

응답자 중 부모와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파악해 보았다.

1) 부모

<표 2-1> 응답자중 부와 모의 비율

성 별	부	모	계
실 수 및 백 분 을	95 (45.46)	114 (54.55)	209 (100)

<표 2-2> 부모의 학력

학 력	응 답 자	부	모
대 졸 및 그 이 상		30 (14.35)	
고 졸		67 (32.06)	
중 졸		54 (25.84)	
국 졸		58 (27.76)	
계		209 (100)	

〈표 2-3〉 부모의 연령

연령 \ 응답자	부	모
50대 및 그 이상	31 (14.83)	
40대	135 (45.93)	
30대	43 (20.57)	
계	209 (100)	

질문지에 응답한 부모 중 부가 응답한 경우는 45.46%, 모가 응답한 경우는 54.55%였다.

응답한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32.06%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국졸로서 27.76%였고 대졸 및 그 이상은 14.35%였다.

부모의 연령은 45.93%가 40대였으며 30대가 20.57%, 50대나 그 이상이 14.83%였다.

2) 교사

〈표 2-4〉 교 사

응답자 \ 학교	남 교사	여 교사	계
남 학교	9	7	16 (64)
여 학교	3	6	9 (36)
계	12	13	25

질문지에 응답한 교사 중 남학교 교사가 16명이었으며 여학교 교사가 9명이었다. 남학교의 여교사가 7명, 남교사가 9명, 여학교의 남교사가 3명, 여교사가 6명이었다.

교사들의 교직 경력은 11-20년 사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5-10년으로서 80% 이상의 교사들이 교직 경험이 5년 이상 되었다.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9명으로서 성교육 외에 주요 담당 과목은 가정, 체육, 기술, 과학, 윤리, 생물이었다.

〈표 2-5〉 교사들의 교직 경력

응답자 교직경력수	교사
1년 미만	1 (4%)
1년 ~ 5년	4 (16%)
5년 ~ 10년	8 (32%)
11년 ~ 20년	10 (40%)
20년 이상	2 (8%)
계	25 (100%)

〈표 2-6〉 성교육 담당 유무

응답자 성교육 담당 유무	교사
담당한다	9 (36)
하지 않는다	16 (64)
계	25 (100)

〈표 2-7〉 성교육 교사의 담당과목

응답자 교과목	교사
가정	1
체육	1
기술	2
과학	2
윤리	2
생물	1
계	9

2. 내용 결과

본 조사에서는 학생, 부모, 교사들이 중학교 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

고 있으며,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를 알아 보고자 했다. 또한 성교육의 주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태도, 학생들의 성문제 및 성지식의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성교육의 필요성이나 문제의 심각도에 비하여 성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를 조사해 보고자 했다.

1) 중학생들의 성문제에 대한 부모, 교사, 학생의 태도

① 중학생들의 성문제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관심도

<표 3-1> 중학생들의 성 문제에 대한 관심도

성에 대한 태도	응답자	
	부 모	교 사
매우 심각하다	58 (27.75)	6 (24)
조금 심각하다	100 (47.84)	16 (64)
보통이다	25 (11.96)	2 (8)
별 문제가 아니다	11 (5.26)	.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15 (7.7)	1 (4)
계	209 (100)	25 (100)

성교육은 중학생들의 성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낄 때 더욱 필요성을 갖게 되고 강조될 것으로 생각되어, 중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하여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나 중학교 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부모 중 27.75%가 중학생들의 성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였고 47.84%가 조금 심각하다고 하였다. 반면 11.43%의 학부모가 중학생들의 성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라거나 (15.26%)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7.17%)고 답하였다.

반면 교사들은 88%가 중학생들의 성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나(24%) 조금 심각하다(64%)고 답하였으며 별 문제가 아니라고 답한 교사는 단지 1명 뿐이다. 부모들에 비하여 일선에서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하여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②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성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38.28%의 부모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52.15%의 부모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90.43%의 부모들이 중학생 자녀를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없다고 응답한 부모도 7.14%나 되

〈표 3-2〉 성교육의 필요성

성교육의 필요성 \ 응답자	부 모	교 사	학 생
매우 필요하다	80(38.28)	14(56)	182(76.15)
조금 필요하다	109(52.15)	10(40)	32(13.38)
필요 없다	15(7.17)		9(3.77)
모르겠다	5(2.39)	1(4)	16(6.69)
계	209(100)	25(100)	239(100)

었다.

교사들은 56%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40%가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96%가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76.15%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고 13.38%가 조금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필요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3.77%였다. 위의 대답을 종합해볼 때 부모, 교사, 학생 거의 전부(90%)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특히 교사들이 더욱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③ 성교육의 주된 책임은 어느 곳에 있는가?

〈표 3-3〉 성교육의 책임자

성교육 책임자 \ 응답자	부	모	교 사	학 생
학 교	25(26.31)	30(26.31)	4(16)	77(32.22)
가 정	53(55.79)	71(62.28)	23(92)	105(43.93)
사 회	25(26.31)	25(21.92)	3(12)	64(26.78)
기 타			1(4)	
계	103	126	31	246

(부모중 20명이, 교사중 6명, 학생중 7명이 학교, 가정 모두에 표시를 하였음)

부모, 교사, 학생 모두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성교육의 주된 책임은 학교와 가정·사회 중 어느 곳에서 져야한다고 생각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59.33%가 성교육의 주된 책임을 가정에서 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와 같은 태도는 부와 모에게 있어서 큰 차이 없이 같게 나타났다. 학교와 사회가 주된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부모는 각각 26.31%, 21.92%로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반수에 가까운 45.93%가 성교육의 주된 책임이 가정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와 사회에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각각 32.22%와 26.78%이다. 반면에 교사들은 거의 모두가(92%) 가정에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하여 부모나 학생들보다 훨씬 더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한 성교육의 책임을 져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고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한계성을 실감함으로써 나타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 ④ 성교육을 시작하여야 하는 시기

〈표 3-4〉 시작하여야 하는 시기

성교육 시기	응답자		
	부 모	교 사	학 생
국 민 학 교 초	14 (6.70)	3 (12)	18 (7.53)
국민학교 상급학년	54 (25.84)	10 (40)	68 (28.45)
중 학 교 초	88 (42.11)	11 (44)	108 (45.19)
중학교 3학년부터	34 (16.27)	1 (4)	23 (9.62)
고등학교부터	17 (8.13)		15 (6.28)
대 학 부 터	2 (0.96)		6 (2.51)
계	209 (100)	25 (100)	239 (100)

성교육을 시켜야만 한다면 어느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부모 중 42.11%, 교사 중 44%, 학생 중 45.19%가 중학교 초부터 성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였다. 중학교 3학년부터라고 응답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중학교때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국민학교 상급학년부터라고 답하였으며 국민학교 초부터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부모 6.70%, 교사 12%, 학생 7.53% 밖에 안되었다.

성교육은 어릴때부터 시켜야 한다는 여러 학자들의 학설이나 청소년들의 성적 발달의 조기화로 봤을때 성교육 시기에 대한 부모, 교사, 학생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⑤ 성교육 내용



〈표 3-5〉 배우거나 가르치기 원하는 성교육 내용

내 용	응답자		
	부 모	교 사	학 생
이 성 문 제	131 (62.67)	20 (80)	161 (67.76)
인 구 문 제	110 (52.63)	15 (60)	102 (42.68)
결 혼 의 의 의	83 (39.71)	10 (40)	96 (40.17)
사 랑 과 책 임	93 (44.50)	18 (72)	114 (47.70)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이해	156 (74.64)	20 (80)	174 (72.80)
임 신 의 과 정	60 (28.71)	6 (24)	74 (30.96)
성 적 관 심 과 충 동	70 (33.40)	9 (36)	160 (66.95)
성 윤 리	80 (38.28)	19 (76)	134 (56.06)
분 만	27 (12.92)	2 (8)	8 (3.35)
육 아	27 (12.92)	1 (4)	28 (11.71)
월 경	46 (22.00)	14 (56)	80 (33.47)
몽 정	29 (13.88)	6 (24)	30 (12.56)
자 위	33 (15.79)	4 (16)	20 (8.37)
성 병	60 (28.71)	12 (48)	108 (45.19)
피 임	34 (16.27)	4 (16)	50 (20.92)
이성의 생식기관	63 (30.14)	8 (32)	140 (58.58)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하나 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성교육 내용은 무엇이며 부모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성교육 내용은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이해, 이성문제, 성적 관심과 충동, 성 윤리, 인구문제, 사랑과 책임, 이성의 생식기관 등을 배우기 원하였다.

부모들은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 이해, 이성교제, 인구문제, 사랑과 책임, 성 윤리 등을 가르치기 원하였다.

교사들은 이성교제, 성 윤리, 사랑과 책임,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 이해, 인구문제, 성병 등을 가르치기 원하였다.

부모, 교사, 학생 모두 구체적인 성지식, 몽정, 자위, 피임, 임신의 과정 등에 대한 지

식을 배우기 원하거나 가르치기를 원하는 비율이 낮았다.

2) 학생들의 성행동 및 성지식 실태

가. 이성 교제 실태

A. 이성 친구 유무 및 이성 친구와의 관계

〈표 3-6〉 이성 친구 유무

응답자		유 무		
		남	여	계
있	다	34 (28)	15(12.71)	49 (20.50)
없	다	82 (67.77)	87(73.73)	169 (70.71)
무	응답	5 (4.1)	16(13.56)	21 (8.79)
계		121	118	239

남학생 중 28%, 여학생 중 12.71%가 이성의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무 응답자도 13.56%로서 응답을 회피한 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질문 자체가 더 구체적이었기 때문인지 많은 학생들이 이성 친구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3-7〉 이성 친구와의 관계

이성친구와의 관계	응답자		
	남 (N 121)	여 (N 118)	계 (N 239)
단순한 친구	65 (89.04)	49 (85.97)	114 (87.69)
데이트하는 상대	7 (5.79)	5 (8.7)	12 (9.23)
애인	1 (1.37)	3 (5.2)	4 (3.07)
계	73	57	130

이성 친구가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서는 20.50%의 학생만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설문지에 응답한 전체 학생 중 54.40%인 130명의 학생들이 이성의 친구가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이성 친구와의 관계는 87.69%의 학생들이 단순한 친구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데이트하는 상대자 또는 애인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12%나 되었다.

B. 이성과의 성관계 행위

중학생들의 성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키스 경험과 성 경험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키스 경험

〈표 3-8〉 키스 경험

키스 경험 \ 응답자	응답자		
	남	여	계
있 다	19 (15.70)	3 (2.5)	22 (9.20)
없 다	100 (82.64)	115 (97.45)	215 (89.96)
무 응답	2 (1.65)		2 (0.83)
계	121 (100)	118 (100)	239 (100)

〈표 3-9〉 키스 경험 상대

키스 경험 상대 \ 응답자	응답자		
	남	여	계
교제 하는 친구	24 (46.15)	2 (20)	26 (41.27)
선 배	7 (19.46)		7 (11.00)
친 척	6 (11.54)	1 (10)	7 (11.00)
교 사	1 (1.92)		1 (1.59)
직 업 적 이 성	1 (1.92)	1 (10)	2 (3.17)
모 르 는 상 대	4 (7.69)	1 (10)	5 (7.94)
집에서 일하는 사람	1 (1.92)		1 (1.59)
기 타	8 (15.38)	5 (50)	13 (20.63)
계	52	10	63

응답자 중 9.2%의 학생이 키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키스경험의 상대에 관한 질문에서 63명인 26.36%의 학생들이 키스 경험 상대자가 누구인가에 응답함으로써 키스 경험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민병근 등이 연구한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와 성행동 양식에 나타난 15.4%보다 더 많다고 보겠다.

키스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많으며 키스 경험의 상대자는 남학생의 경우 교제하는 친구가 제 1위로서 46.15%이며 제 2위는 기타로서 15.38%이다. 여학생은 키

스 상대자가 기타로서 가장 많은 50%를 차지한다.

남녀 학생 모두가 기타에 응답한 자가 많으므로 기타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 성 경험

〈표 3-10〉 성 경험

성 경험 \ 응답자	남	여	계
있 다	3 (2.48)	2 (1.69)	5 (2.09)
없 다	118 (97.62)	113 (95.76)	231 (96.66)
무 응답		3 (2.4)	3 (1.26)
계	121 (100)	118 (100)	239 (100)

〈표 3-11〉 성 경험 상대

성 경험 상대 \ 응답자	남	여	계
교 제 하 는 친 구	12 (50)	2 (20)	14 (41.18)
선 배			
친 척	2 (8.25)	2 (20)	3 (8.82)
교 사			1 (2.94)
직 업 적 여 성	2 (8.25)		2 (5.88)
모 르 는 상 대	2 (8.25)	1 (10)	3 (8.82)
집에서 일하는 사람			
기 타	6 (25)	5 (50)	11 (32.25)
계	24 (100)	10 (100)	34 (100)

성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남학생 중 2.48%, 여학생 중 1.69%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성 경험의 상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239명 중 34명인 14.23%의 학생들이 성 경험의 상대자가 누구인가를 답함으로써 위에서 성 경험이 없다고 답한 2.09%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실제로 성 경험이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성경험 상대자는 교제하는 친구가 남학생의 경우 50%로서 가장 많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기타가 50%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친구(20%)와 친척(20%)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병근 등의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성교 경험을 12.1%와도 비슷하다고 하겠다.

나.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

중학생들이 성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며 그 성지식의 전달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조사 하였다.

A. 성 지식의 이해도

응답자	남	여	계
성지식 이해			
매우 많이 알고 있다.	8 (6.61)	2 (1.69)	10 (4.18)
조금 알고 있다.	67 (55.37)	71 (60.17)	138 (57.74)
잘 모르고 있다.	41 (33.88)	26 (22.03)	67 (28.03)
전혀 모르고 있다.	5 (4.13)	19 (16.10)	24 (10.04)
계	121	118	239

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57.74%) 조금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이 잘 모르고 있다는 학생들 (28.03%)이며 전혀 모른다고 한 학생도 10.04%나 되었다.

B. 성 지식 입수 경로

성 지식은 잡지를 통해 얻는 학생이 전체의 58.58%이고 TV를 통해 얻는 학생이 39.75%로서 많은 학생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성 지식을 얻거나 의문을 해소하는 경우는 7.53%에 불과하며 교사를 통해서 10.88%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성에 관한 교육의 주 책임을 부모나 학교가 져야 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여 현실적으로는 사회 특히 매스컴이나 친구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성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배우기보다는 선정적이고 흥미 본위로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하나 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재된 %는 각 문항에 표시한 학생수가 응답자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된다)

〈표 3 - 13〉 성지식 입수 경로

성 입수 경로 \ 응답자	남	여	계
신문 · 라디오	15 (12.37)	10 (8.47)	25 (10.46)
T V	51 (42.19)	44 (3.73)	95 (39.75)
잡지	80 (66.12)	60 (50.08)	140 (58.58)
영화	24 (19.83)	29 (2.46)	53 (22.18)
친구	49 (40.50)	45 (3.81)	94 (39.33)
부모	4 (3.31)	14 (11.86)	18 (7.53)
교사	16 (13.22)	10 (8.47)	26 (10.88)
친척	1 (0.8)	3 (2.54)	4 (1.67)
형제자매	5 (4.13)	10 (8.47)	15 (6.28)
기타	9 (7.44)	10 (8.47)	19 (7.95)

◦ 성에 관한 의문의 의논 상대자

〈표 3 - 14〉 성에 관한 의문의 의논 상대

성 의논 상대 \ 응답자	남	여	계
친구	69 (57.02)	45 (38.14)	117 (48.95)
교사	12 (9.92)	6 (5.08)	18 (7.53)
부모	20 (16.52)	48 (40.68)	65 (27.20)
형제자매	11 (9.09)	15 (12.71)	26 (10.88)
선배	6 (4.96)	3 (3.86)	9 (3.77)
기타	3 (2.48)	1 (0.85)	4 (1.67)
계	121 (100)	118 (100)	239 (100)

성에 관한 의문이 생기면 누구와 의논하겠는가의 질문에 남학생은 친구 (57.02%)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부모로서 16.52%이며 교사와 의논하겠다는 학생은 9.92%이다.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 (40.68%)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친구 (38.14%)이고 교사와 의논하겠다는 학생은 5.08%이다.

여학생의 경우 성지식을 부모로부터 습득한 경우는 11.86%인데 비해 성에 관한 의논

은 부모에게 하겠다는 학생은 40.68%로 자녀들의 질문을 받아들이고 유도할 수 있는 부모들의 적극적이고 허용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 C. 성지식에 대한 욕구도

〈표 3-15〉 성지식에 대한 욕구

응답자 성에 대한 관심	남	여	계
매우 많이 알고 싶다	84 (69.42)	52(44.07)	136 (56.90)
모르겠다	23 (19)	49(41.52)	72 (30.13)
더 이상 필요없다	14 (11.57)	17(14.40)	31 (12.97)
계	121 (100)	118(100)	239 (100)

학생들의 성지식에 대한 욕구도를 알기 위해 성에 관하여 더 알기를 원하는가를 질문하였다.

반수 이상의 (56.90%) 학생들이 매우 많이 알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반면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30.13%나 되었다. 남학생들이 (69.42%) 여학생들 (44.06%) 보다 성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3) 가정에서의 성교육 실태

#### 가.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 유무

〈표 3-16〉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 여부

응답자 가정에서 성교육	부	모	계
있	21 (22.10)	40 (35.09)	61 (29.19)
없	73 (76.84)	72 (63.16)	143 (68.42)
무 응답	1 (1.1)	2 (1.75)	3 (1.44)
계	95	112	207

많은 부모들이 가정이 자녀들의 성교육의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나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가를 조사하였다.

부모들 중 29.19%만이 성교육을 가정에서 시킨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과반수가 넘는 68.42%는 시킨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응답자 가르치고 있는 내용		남 학교	여 학교	계
		분	·	·
육	아	·	0	1
월	경	1	5	6
몽	정	1	0	1
자	위	·	0	1
성	병	2	5	7
피	임	1	1	2
이성의생식기관		1	2	3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교육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교사들이 이성교제, 사춘기의 특성이해, 인구문제, 성윤리 등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제 2의 성특징인 몽정, 자위, 성적 관심과 총동 등에 관하여서는 가르치는 교사가 1명 밖에 없었다.

라. 학교에서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

〈표 3 - 20〉 학교에서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

응답자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		교 사	부 모
		이 성 교 제	20 (80)
인 구 문 제	15 (60)	110 (52.63)	
결 혼 의 의 의	10 (40)	83 (39.71)	
사 랑 과 책 임	18 (72)	93 (44.49)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이해	20 (80)	156 (74.64)	
임 신 의 과 정	6 (24)	60 (28.70)	
성 적 관 심 과 총 동	9 (36)	70 (33.49)	
성 윤 리	19 (76)	80 (38.28)	
분 만	2 (8)	27 (12.91)	
육 아	1 (4)	27 (12.91)	
제 2 의 성 특 징	14 (56)	46 (22.00)	
몽 정	6 (24)	29 (13.88)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	응답자	교 사	부 모
	자 위	4 (16)	33 (15.79)
성 병	12 (48)	60 (28.70)	
피 임	4 (16)	34 (16.27)	
이성의생식기관	8 (32)	62 (29.67)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 이성교제, 인구문제, 사랑과 책임 등에 대하여는 많은 교사나 부모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몽정, 자위 또는 이성의 생식기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면에 대해서는 적은 수의 부모와 교사만이 응답을 하였다.

마. 성교육 교재 유무

<표 8-21> 성교육 교재 유무

성교육 유무	응답자	남 학교	여 학교	계
	있 다	.	3	3
없 다	4	2	6	
계	4	5	9	

성교육을 위한 교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3명만이 있다고 답하였다.

교재는 대한 가족 계획협회에서 출판된 사랑과 성, 과학연구소에서 출판된 중학교 과학, 그리고 문교부에서 나온 순결교육 자료라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에 중학생의 성교육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라고 한 내용에서는 교사들의 사춘기 성장에 대한 slide 및 영화 상영 등의 자료를 통한 교육, 남녀 공학을 통한 자연스러운 성교육, 성교육 전담 교사를 통한 체계적인 지도, 난무하는 음란 서적의 제거를 들었다.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중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성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를 파악하여 성교육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밝혀 내며 바람직한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인구 18만의 C시내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 239명과 그들의 부모 209명, 중학교 교사 25명이었으며 질문지법을 통해 조사 연구하였다.

성교육 실태 및 태도 분석은 첫째 학생, 부모, 교사의 성교육에 관한 태도를 비교·분석하였고, 둘째는 학생의 행동 및 성지식 실태, 세번째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 부모, 교사들의 성교육에 관한 태도

- ① 부모(88%), 교사(75.29%) 대부분이 중학생의 성문제를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 ② 학생들 76.15%가 부모(38.28%)나 교사(56%)보다 더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부모, 교사, 학생 모두 90% 이상이 성교육을 조금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③ 부모(59.33%), 교사(92%), 학생(43.93%) 모두가 가정에서 성교육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 ④ 성교육을 시작하여야 하는 시기는 부모, 교사, 학생 모두 대부분이 중학교 초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다.
- ⑤ 부모나 교사가 가르치기 원하는 내용과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성교육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

#### (2) 학생들의 성행동 및 성지식에 관한 실태 분석

- ① 이성 친구가 있는 학생이 54.04%였으며 대부분이 단순한 친구로 사귀고 있으나 12%의 학생은 애인 또는 데이트 상대자로 사귀고 있었다.
- ② 학생 중 21.31%가 친구 경험이 있고 키스 상대자는 남녀 학생 모두 친구가 가장 많고 모르는 상대(7.94%) 또는 친척(11%)과의 키스 경험을 가진 자도 있었다.
- ③ 학생 중 14.1%의 학생이 성경험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성경험 상대자는 남자는 교제하는 친구가 가장 많고 여자는 기타가 50%로 가장 많다. 여학생의 경우는 두번째가 교제하는 친구와 친척이다.

- ④ 성지식에 관하여는 많은 (38.03%) 학생들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고 있었다.
- ⑤ 성지식을 얻는 경로는 첫번째로 많은 것이 잡지 (58.58%)며 두번째가 TV와 친구이다. 부모와 교사에게서 성지식을 얻는 경우는 각각 7.53%, 10.58%로서 가정이나 학교가 성교육의 책임을 지는 주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부모, 교사, 학생들의 응답과는 실제로 큰 차이가 있다.
- ⑥ 성 의문에 관한 의논 상대자로는 남학생은 친구 (59.50%)가 가장 많고 여학생은 부모 (43.22%)와 친구 (40.68%)가 비슷하게 많았다.
- ⑦ 학생들의 성 지식에 대한 욕구도는 높아 학생 중 56.90%가 성에 관해 더 배우고 싶어하였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욕구를 갖고 있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학교나 가정에서 여학생보다 성에 관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적은데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3) 가정에서의 성교육 실태

- ① 부모들 중 29.19%만이 성교육을 자녀에게 시킨 적이 있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많이 성교육을 시킨다.

가정에서 성교육의 주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모들의 태도와 실제가 합치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 ② 성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부모 자신이 쑥스러워 못 시키고 있다.
- ③ 성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피상적이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마는 경우가 많다.

(4) 학교에서의 성교육 실태

- ①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② 여학교가 남학교보다 성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학생들이 성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충동적인 것에 비하여서 남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이 무시되고 있다.
- ③ 몽정, 자위, 성적 관심과 충동, 이성의 생식기관, 피임, 임신 등 구체적이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 ④ 학생들이나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가 거의 없다.
- ⑤ 중학교에서의 성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1983년 이전과 크게 변함이 없으며 행동적인 뒷받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 제 언

- ① 중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이 가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② 성교육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부모들이 보다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녀들의 성에 관한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해줄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교육은 사회사업 기관이나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겠다.

③ 성교육 내용은 몽정, 자위, 피임, 임신의 과정, 이성의 생식기관 등과 성운리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여야만 성문제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다.

④ 성의 능동적인 주체자가 남학생이므로 남학생을 위한 성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⑤ 학생들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⑥ 학생들의 자연스런 성교육을 위하여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⑦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매스컴을 통해 성지식을 얻으므로 청소년들이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성교육 잡지나 팸플렛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⑧ 현실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교육의 책임을 수행치 못하고 있으므로 사회사업 기관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교회, 공장, 새마을 어머니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면 바람직 하겠다.

⑨ 많은 청소년들이 13-14세에 성지식을 습득하며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중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 註 \*\*\*

- 1) Zelnik Melvin and John F. Kantnes, "Sexual activity, contraceptive use and pregnancy among metropolitan area teenagers, 1971 - 1979,"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12, No 5 (1980), pp. 230 ~ 237.
- 2) Gordon and Dickman, *Sex Education : the Parent's role*, *Public Affairs Pamphlet* No. 549 (1969), p. 3.
- 3) 민병근·최상진·이길홍, 「오늘의 청소년 :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중앙대학교 영신아카데미 연구원, 한국 청소년 문제연구소, 1978), p. 857.
- 4)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5) 민병근·최상진·이길홍, 前掲書
- 6)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7) 김경희, “발달 과정에 따른 성교육 : 심리 생리학적 측면,” 「새교육」, 11 (1978), p. 32.
- 8) Block, William A, *What Your Child Really Wants to Know about Sex - and Why* (Engle wood Cliffs, N. J. : Prentice - Hall, 1972).
- 9) 김경희, “발달 과정에 따른 성교육 : 심리생리학적 측면,” 「새 교육」, 11 (1978), p. 33.
- 10) 민병근,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제 2집 (중앙대학교 영신 아카데미 연구원, 한국청소년문제 연구소, 1978), p. 8.
- 11) 정인석, 「현대 청년발달 심리학」(서울 : 재동문화사, 1983), p. 98.
- 12) 안창성, “고교생의 성적 적응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평론」, 235호, (1978), pp. 122 - 130.
- 13) 민병근 · 최상진 · 이길홍, 「오늘의 청소년 :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제 4집 (중앙대학교 영신아카데미 연구원, 한국 청소년문제 연구소, 1980).
- 14)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15) 동아출판사 편집부, 「동아원색 세계대백과사전」, 17 권 (서울 : 동아출판사, 1983 ) p. 213.
- 16) 정인석, 「현대 청년발달 심리학」(서울 : 재동문화사, 1983), p. 98.
- 17) 上掲書, pp. 41 - 50.
- 18) Ch. Bühler, *Psychologie des Jugendalters* (1927, S.), pp. 23 - 24.
- 19) *Loc. cit.*
- 20) Hurlock, Elizabeth B.,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 - Hill Book Co., 1959).
- 21) Werkman, S. L, “Psychiatric Disorders of Adolescence,” *American Handbook Psychiatry*, 2nd ed., Vol 2 (New York : Barsc Book Co., 1974).
- 22) 김광문, “성교육의 세계적 경향,” 「새 교육」(1970, 10월), pp. 58 - 59.
- 23) 전찬화, “초경연령에 관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 연구원 논총」, 제 2 권, 제 1 호(1960).
- 24) 김성태 · 김봉숙, “서울 시내 여자중고생들의 월경 개시기에 관한 연구,” 「심리학 연구」, 창간호(성균관 대학교 심리학회, 1962).

- 25) 김길자, “서울 시내 여학생의 성적성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71).
- 26) 서봉연·전광문,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조사」 (중앙교육연구소, 1968), p. 20.
- 27) 한관일, “사춘기의 성적발달과 교육문제,” 「새교육」, 258호(1976, 4), pp. 109 - 115.
- 28) Wood, N. Anne Mandetta, “Change in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Following a Course in Human Sexuality,” *N. R.*, 24, 1 (1975).
- 29) Chesler, J., “Twenty seven strategies for Teaching Contraception to Adolescents,” *J. S. H.*, (1980), pp. 18 ~ 21.
- 30) Douglas. K. “The Effects of School Sex Education Procedure, A Riview of the Literature, *J. S. H.*, (1980), pp. 558 - 563.
- 31) 박준희·전찬화·정식영·황응연, 「성교육」 (교육출판사, 1978).
- 32) Gordon and Dickman, *Sex Education: The Parent's Role* Public Affair Pamphlet, No. 549 (1979).
- 33) 최지운, “학교의 성교육,” 「서울 교육관리기술」, 11 (1978), p. 42.
- 34) 성영자·정연강,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 연구,” 「중앙의대지」, 제 9권 제 3호(1984), p. 475.
- 35) 김경희, “발달 과정에 따른 성교육: 생리학적 측면,” 「새교육」, 11 (1978), p. 32.
- 36) 김석곤, “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성교육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공중보건학」, 6. 1. (1969), pp. 186 - 187.
- 37) 황순근, “성교육의 프로그램, 중등교육과정,” 「새교육」, 11 (1978), p. 42.
- 38) 김은우, “학교 교육에서 성교육,” 「새교육」, 11 (1978), p. 27.
- 39) 민병근·최상진·이길홍, 「오늘의 청소년: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제 3집 (중앙대학교 영신아카데미 연구원, 한국 청소년문제 연구소, 1978).
- 40) Gordon and Dickman, *Sex Education: The Parent's role*, Public Affairs Pamphlet No. 549, (1979).